



새로운 조경수 52

- 안개꽃나무 (스모크츄리) -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종류와 생육특성

안개꽃나무(일명:연기꽃나무)는 울나무과의 코티누스(Cotinus)속의 일종으로 남부유럽, 중앙아시아, 북미(北美)에 2종이 분포하고 있다. 꽃이 지고 난 후에 화경(花梗)이 아주 가느다란 솜털같이 자라서 처음에는 연막탄(煙幕彈)을 터트려 놓은 것 같이 홍갈색(紅褐色)이나 차츰 회색(灰色)으로 변

재색(材色)이 황색이라 하여 황로(黃樫)라고 하고 있다. 변종으로는 가지가 아래로 쳐지는 능수 안개꽃나무(Cotinus coggyria SCOP. var. pendula)와 잎이 짙은 자색인 자색안개꽃나무(Cotinus coggyria SCOP. var. atropurpurea)가 있다. 생육적지는 햇볕이 잘 드는 양지로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며 내한성(耐寒性)이 강하며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도 식재가 가능하고 현재 광능수목원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정형(整形)이 되기 때문에 전정을 해줄 필요가 없으나 꼭 전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개화 후에 해주는 것이 좋다.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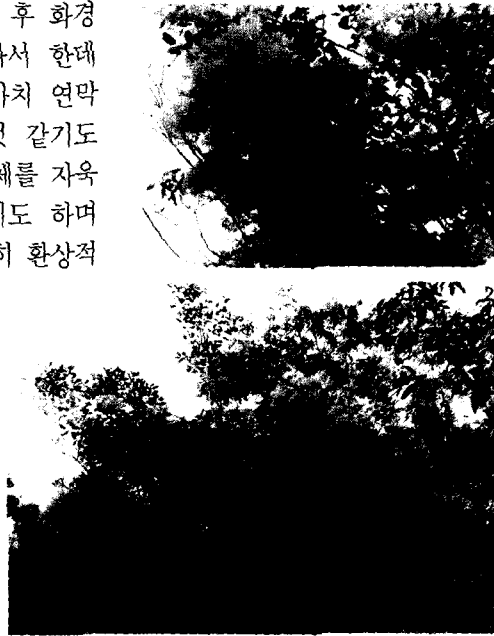
안개꽃나무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으며 일반 조경수의 관상대상(觀賞對象)은 꽃, 열매, 단풍 등이지만 안개꽃나무는 꽃, 열매, 단풍 등이 관상의 대상이 아니라 화경(花梗)이 관상대상이라는 것이 특이한 점



위:안개꽃나무의 개화전경
아래:안개꽃나무의 화서와 꽃

하며 안개나, 연기가 자욱히 끼여있는 것 같다하여 안개꽃나무 또는 연기꽃나무라고 불리고 있으며 영어로는 스모크츄리(Smoke-tree)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목재의

이다. 즉 꽃이 지고난 후 화경이 가늘게 길게 자라서 한데 뒤엎혀있는 모양이 마치 연막탄을 터트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안개가 나무 전체를 자욱히 덮고 있는것 같기도 하며 이와 같은 모습은 가히 환상적(幻想的)이다. 그리고 가을의 단풍도 황색, 자색, 홍색 등으로 다양하여 가을의 풍치를 한층 더 해준다. 도시녹지지역, 가로변, 도심하천변 등의 조경용으로 또는 도시근교림,



1. 화경 신장초기의 근경
2. 화경 신장초기의 전경
3. 화경 신장후기의 전경

〈표 1〉안개꽃나무의 종류

국명	학명	일본명	영명
안개꽃나무	Cotinus coggyria SCOP.	カスミノキ (スモ-クツリ)	Smoke-tree
작은잎안개꽃나무	Cotinus americanus SCOP.		

〈표 2〉수종별 특성

수종별	가지와 잎	꽃과 열매
안개꽃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관목 및 소교목으로 수고 3~7m까지 자람 · 줄기는 뿌리목에서 몇 개로 갈라짐 · 잎은 난형(卵形), 원두(圓頭), 협각(挾脚) · 잎은 호생하고, 잎의 길이 3~9cm, 잎자루 2~3cm · 잎의 양면에 털이 없고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록색이며 잎자루는 붉은빛이 들 ·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6~7월에 대자색(帶紫色)으로 피고 꽃의 지름은 3mm 정도임 · 화서는 원추화서(圓錐花序)로 가지끝에 피고 화서의 길이는 15~20cm임 · 꽃의 대부분은 불임성(不妊性)임 · 열매는 핵과(核果)로 신장형(腎藏形)임 · 열매의 지름은 3~4mm로 홍색으로 익음
작은잎안개꽃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개나무보다 잎이 작고 가을에 붉게 단풍이 드는 것이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과 열매의 특징은 안개나무와 비슷함

도시림,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변 및 제방 등의 도로변 및 산책로에 집단으로 식재하여 안개꽃나무거리를 조성해봄도 좋을 것이다.

번식 및 양묘방법

번식은 파종(播種), 분주(分株), 취목(取木), 근삽(根插) 등의 방법이 있으나 분주, 취목, 근삽 등의 방법에 의한 번식은 한꺼번에 다량의 묘목을 생산하기는 어렵고 한꺼번에 다량의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종자파종에 의한 실생묘 양성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종자품질의 표준화 및 실생묘 양묘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종자품질의 표준화 및 실생묘 양성방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경수**